

電機工業發展 民間協議會 開催

電機工業 전반에 걸친 민간자율의 범 업계적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전기공업 발전에 관한 대정부 건의사항등을 협의하기 위한 電機工業發展 民間協議會(委員長:李喜鍾)가 지난 12月13日 무역클럽에서 전기공업발전 민간협의회 위원 15명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95 전기공업 시책 방향 협의와 "21세기를 향한 重電産業의 발전전략"연구결과 중간보고, "중전기 산업발전 민간기금 조성계획"보고가 있었다.

한편, 전기공업발전 민간협의회는 지난 '86년부터 민간자율의 협의체로 산업정책에 관한 민간부문의 각종 산업,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도모하고 자율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산업정책 결정에 관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공업국별로 구성 운영된 협의체 기능에 따라 4期에 걸쳐 8년째 운영되고 있다.

동남아 電機工業 시장개척단, 8천5백만\$ 수출상담 -대만, 말레이시아 전기공업 단체와 업무협조 약정 체결-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3일(12일간) 까지 대만등 동남아 5개국에 수출시장 개척단(단장:任寅柱)을 파견, 8천5백만\$의 상담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최근 고도 경제성장과 급속한 공업화로 대규모 전기설비 프로젝트 및 기자재 수요가 크게 예상되는 동남아 지역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하여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파견된 이번 수출시장 개척단은 金星産電, 現代重工業 등 重電業界 대, 중소기업 8개사가 참여해 대만 1천6백만\$, 싱가포르 1천7백만\$, 말레이시아 3천만\$, 태국 1천9백만\$, 베트남 3백만\$등 총 8천5백만\$의 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대만 및 말레이시아에서는 전기공업 관련 단체와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키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해외 주요 전기관련 단체와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만에서는 臺灣區電機電子工業同業公會(TEEMA: Taiwa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nufacturers Association)를 방문, 양 단체간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기로 합의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전기전자공업협회(TEEAM: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Association of Malaysia)와 업무협약 약정에 가서명 했다.

이밖에도 시장개척단은 각국의 전력청을 방문, 중장기 전원개발 계획 및 전력기가재 수급현황과 입찰구매 계획 등을 파악하고 우리 업체의 프로젝트 진출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향후 우리 업계의 유망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남부지역 전력 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전력청(Power Company No. II)과 각종 프로젝트 추진시 우리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는데 합의했다.

한편,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이번 시장개척 활동을 계기로 우리 중전업계의 국제화 및 수출다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수출 가능지역에 대한 시장개척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電機工業 '95 경기 호조 전망 —수출호조, 내수활성화로 생산 13%, 수출 27% 증가 예상—

'95년의 전기공업 경기는 세계 경기의 회복세, 엔고의 지속 등 대외환경 호전과 내수경기 호황, 국내 중전업계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급화 및 해외 지역별 특화전략 등에 힘입어 금년도에 이어 활황 국면을 지속할 전망이다.

韓國電機工業振興會가 주요 重電業體 7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電機工業 기상도가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의 경우 내수회복과 설비투자 증대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어 금년보다 13.0% 증가한 3조 4천억원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가동률도 85%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도 업계의 수출마케팅 강화와 동남아 등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척으로 금년보다 26.9%가 증가한 10억5천만 \$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금년 3천5백억원에서 '95년에는 다소 둔화된 3천4백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중전기기 대수요처인 한전의 전력기자재 수요증가와 더불어 내수 수요의 폭발적 증가, 수출호전 등 경기전망이 밝은데다 경쟁력을 높이려는 중전업계의 공감대 형성으로 투자심리가 되살아 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경기회복 여건에 따라 중전업계의 내년도 시장 전망도 매우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조 7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전업계는 내년에는 17.5% 증가한 5조5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95년의 순이익액도 1천4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공업 동향 및 '95년 전망” 조사 보고서는 별도 유인물로 회원사에 기 배포함)

♠ 생산기술 정보 하이텔 서비스 ♠

생산기술정보자료를 PC 통신망인 하이텔을 통해 민간에 제공한다.

상공자원부는 민간에 대한 기술 개발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급으로 기술개발자금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정책센터를 통한 생산기술정보자료제공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이텔을 통해 제공되는 기술정보는 87년 이후 상공자원부가 지원한 공업기반기술 사업, 공업발전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과제에 대한 리스트, 추진현황 및 기술개발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기술개발 분야별로 산업계와 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를 소개하며 기술개발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